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8. 7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8 / 7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악을 선으로 바꿈
처음 마음으로	08	지혜로운 삶
공감으로 소통하실래요	13	질문의 진화
특별기고	16	법정 스님이 사랑한 음악 - ②
길상사 시간여행	20	길상사에서 법정 스님의 숨결을 느끼다 - ②
아름다운 마무리	24	7월 결연 대상자 - 김영훈(가명)
제2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수상작(산문)	26	저학년/고학년 산문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2	중앙모임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49	



사진·김백용 「아름다운 외출」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시다.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8년 7월 1일 발행 / 통권 281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연현경,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정은
대구모임 : (053)753-888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악을 선으로 바꿈

글·법 정(法 頂)

1. 악을 선으로 바꿈

내가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배운 구자라티 시 한 구절이 얼마나 나를 사로잡았었는지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마실 물 한 그릇을 주어 당신도 그 보답으로 그에게 물 한 그릇을 주었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일. 진정한 아름다움은 모든 악에 대항하여 선을 행하는 데 있는 것을”

어렸을 적에 이 구절은 나에게 강렬한 영향을 끼쳤고 나는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였다. 나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바카바드기타』를 꽤 알

고 있었는데, 그때는 <산상수훈>도 입수하였지만 당시에 상세한 연구를 통해 그 가르침을 받지는 못하였다. 정말로 나에게 진실과 소극적 저항(Passive Resistance)의 가치를 깨우쳐 준 것은 『신약성서』이었다.

내가 <산상수훈>에서 “양값음하지 말아라.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와 같은 구절을 읽었을 때, 나는 정말로 뿔 듯이 기뻐하였으며,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내 생각이 확실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바카바드

기타』는 이러한 나의 감명을 심화시켜 주었으며, 톨스토이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라는 작품은 그 감명을 영원한 확신에 차게 하였다.

나는 ‘소극적 저항’이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뜻하는 것을 모두 전달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표현은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주기는 하지만 소극적 저항이 단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시사해 주지 못한다. 내가 목적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악에 대항하여 선을 행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용어가 잘 알려져 있고 쉽게 이해되기 때문에 채택했다. 구자라티 찬가와 <산상수훈>에 내재되어 있는 사상은 나의 전 생애에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되었다.

- Speeches & Writings of M. Gandhi: P. 109 -

2. ‘양값음하지 마라’

‘소극적 저항’은 잘못된 명칭이다. 그러나 그 표현은 널리 받아들여져 왔으며 그 용어에 함축된 사상을 실천해 온 자들에 의해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왔다. 그 사상은 ‘영혼의 힘’(Soul-force)이라는 용어에 의해서 더욱더 완전하게 잘 표현되어진다. 따라서 소극적 저항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적극적 저항은 사람들에게 의해 ‘육체의 힘’(Body-force)이라는 용어로 더 잘 표현됐다.

예수 그리스도, 다니엘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소극적 저항 또는 영혼의 힘의 가장 순수한 형태를 보여준다. 이들 모든 스승은 그들의 육체는 그들의 영혼에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던 것이다. 톨스토이는 그 원리의 가장 뛰어난 가장 훌륭한 현대의 대표자였다. 그는 그 원리를 해석해 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았던 것이다.

그 원리는 유럽에서 성행하기 오래

전에, 인도에서 이해하고 있었고 널리 행해왔다. 영혼의 힘은 육체의 힘보다 무한히 뛰어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사람들이 그릇된 것들을 확실히 바로잡기 위하여 영혼의 힘을 빌린다면 오늘날 대부분의 재난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이 힘을 사용한다면 절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용되어질 때라도 이 힘은 사용자를 상해할 뿐이며 상대자를 해하지는 않는다. 덕과 마찬가지로 그 나름대로의 보상이 있다. 이러한 힘을 사용할 경우에는 실패와 같은 일은 없다.

3. 영혼의 힘 대 물리적 힘

‘양강함하지 마라’는 것은 악이 악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에 의해서만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물리적 힘은 물리적 힘과 같은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혼의 힘에 의해서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다. 같은 사상이 인도 철학에서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해하지 말 것’이라는 말로 나타나 있다. 이 원리를 사용하면 영혼의 힘을 사용하는 편에서 물리적 고난을 감수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의 총체는 세상에서 하찮은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것이라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영혼의 광대한 힘을 아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기의 운명처럼 물리적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물리적 고난이 끝나했을 때는 바로 그 고난이 고난자에게 기쁨의 근원이 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극적 저항은 물리적 힘보다 무한히 뛰어나며 물리적 힘보다 훨씬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다. 따라서 소극적 저항만으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힘이 성공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육체와는

별도로 영혼의 존재와 그 영원성 그 되는 것이다.

리고 초월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 Speeches & Writings of M. 이 인정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지 Gandhi: P. 132 - 단순히 지적인 이해에 머물러서는 안

- 여기에 옮긴 글은 법정 스님이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시던 1978년에 쓰신 글로, 영어로 된 마하트마 간디의 글 중에서 직접 우리말로 옮긴 글이다. 이 원고는 <씨알의 소리> 편집장 박선균님이 서재를 정리하다 발견하였는데, 어느 저서를 참고로 하였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천연 화장품 만들기 강좌 안내(짝수 달 매주 수요일)

천연화장품 강좌는 만들어 쓰는 약간의 불편함은 분명 있지만, 환경에 최소한의 피해만 끼치며, 내가 직접 만들어 쓰는 생태적인 삶을 위한 또 하나의 실천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는 짝수 달(2, 4, 6, 8, 10, 12월) 첫째 주에서 넷째 주 수요일에 삼푸, 로션, 에센스, 비누&스킨 순서대로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시간: 오후 1시 30분
- 장소: 길상사 내 세계일화실(소모임방)

지혜로운 삶

글 • 덕 일(德日)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종단에서 주관하는 봉축 연등행렬이 서울 거리에서 성대하게 봉행되었습니다. 길상사에서도 연등불사에 동참한 불자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자비의 등불을 온 세상 우주 법계에 밝히었습니다. 서울 시내 많은 사찰들이 함께 행렬에 동참하였지만, 우리 길상사의 인지도가 당연 최고였습니다. 비가 오는 관계로 사물놀이패가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지나가는 곳곳마다 많은 시민들께서 “길상사! 길상사!” 명호를 외치며, 반갑게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길상사 로고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적극 동참하시어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에 길상사를 널리 알리는 좋은 홍보 역할을 충

분히 하여 주셨음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행사에 동참하기 전 방에서 기르던 난이 시들어 있어 바깥 구경도 시키고 비도 맞힐 겸 마당에 내어 놓았는데, 돌아와 보니 감로의 비를 맞아서인지 난이 아주 싱그럽고 생기 있는 자기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당당히 행진하며 감로의 비를 흠뻑 맞으셨으니, 전생의 업장이 소멸되고, 지혜가 증장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초하루이며,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예쁘고 아름다운 꽃을 신행단체에서 상단에 공

양을 올려주셨습니다. 대중스님들과 함께 꽃 공양을 받고 나니 행복하였지만, 여러분들에게 모든 점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것에 주지로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님은 부처님이시지만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참고 견디며, 삶의 지혜를 터득하셨으니 여러분 또한 스승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의 향기와 정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법회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조금 더 ‘지혜롭게 살자.’라는 명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주지소임을 맡고 있다 보니 여러 신도분들로부터 전화 상담을 청해 받아 대화하거나 또한 세속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각종 전화를 받아 듣고 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쁜 일이고 또 하나는 ‘슬픈 일입니다. 기쁜 얘기를 들으면 함께 기뻐서 축하해 주고 싶고, 슬픈 얘

기를 들으면 함께 슬퍼해 주고 싶으니 세상 살아가면서 어느 쪽에 내 마음을 맞추어 살아가야 할까? 하는 문제도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 서 사왓티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습니다. 기원정사 부근에는 외도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가시를 깔고 눕는 등 갖가지 고행으로 사람들의 이복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비구스님들이 사왓티로 걸식을 나갔다가 돌아와 부처님께 외도들이 고행하는 모습을 말씀드리고 여쭙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외도들의 그와 같은 수행에도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방식의 수행에는 공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저들의 수행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토끼가 어떤 소리를 듣고 놀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느니라.”

“세존이시여! 토끼가 무슨 소리를 듣고, 놀란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비구들아, 내 이유를 말할 터이니 자세히 들어라.”

아주 먼 옛날 토끼 한 마리가 큰 열매가 열리는 나무 밑에 살고 있었느니라. 어느 날 토끼는 나무 밑에 누워서 만약 이 대지가 무너지면 나는 어디로 갈까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 순간 커다란 나무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서 ‘쿵’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놀란 토끼는 “세상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닫기 시작했다. 그가 죽을힘을 다하여 도망하는 것을 본 다른 토끼가 물었다.

“여보게 자네는 왜 그렇게 겁을 먹고 달아나는가?”

“여보게 묻지도 말게”

“여보게 무슨 일인가?, 여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 토끼는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라고만 말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가자 다른 토끼들도 큰일이 났다고 생각하고는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앞의 토끼만을 따라 달렸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토끼들이 들판을 달리게 되었다. 토끼들이 떼를 지어 달리는

모습을 보고 사슴들이 따라 달렸고, 그 뒤를 이어 돼지, 소, 물소, 코뿔소, 호랑이, 사자 그리고 코끼리까지도 내달렸다. 그리하여 숲 속의 모든 짐승들이 뛰기 시작하자 어느새 숲 속은 천지가 무너지는 것처럼 요란했다.

그 광경을 보게 된 황금사자였던 나는 “도대체 무슨 일들이냐?”고 물었으나 짐승들은 “지금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라고만 말하고 계속 뛰어갔다. 나는 그때 생각하기를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징조는 어디에도 없다. 종말이 온다는 소리는 분명 진실을 알지 못한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저들은 모두 망하겠다. 내가 저들을 구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짐승들의 앞으로 달려 나가 “멈추어 서라.”고 사자후를 하자 그 소리에 놀란 짐승들이 멈추었다. 나는 그들 사이로 들어가 코끼리에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느냐고 물었다. 코끼리는 자기가 본 것이 아니라 사자에게 들었다고 했다. 사자

는 또 호랑이에게 들었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호랑이, 코뿔소, 물소, 소, 돼지, 사슴으로 이어가며 물었고 드디어 처음에 놀라서 달아났던 토끼에 이르렀다.

“너는 어찌 세상이 무너진다고 말했느냐?”

“황금 사자님(붓다의 전생신)! 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보았느냐?”

“큰 나무 밑에서 보았습니다. 큰 나무 밑에 누워 세상이 무너지면 나는 어디로 갈까를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쿵’ 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럼 내가 토끼를 데리고 가서 확인하고 올 터이니 너희들은 그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황금사자인 나는 토끼와 함께 그 나무가 있는 근처 숲에 이르러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곳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토끼는 겁이 나서 더 이상 나무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내 뒤로 숲

으면서 “저기가 쿵! 소리가 난 곳이다.”라고 했다. 내가 그 나무 밑으로 가서 확인해 보니 토끼가 누웠던 곳에 커다란 나무 열매가 하나 떨어져 있었다. 나는 잠시 짐승들에게 되돌아가서 이렇게 말했다. “나무 열매 떨어지는 ‘쿵’ 소리에 토끼가 놀라 도망치니 못 짐승들이 따라 도망쳤구나. 누구나 사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고, 토끼의 말만 믿고 앞다투어 도망하듯이 어리석은 자들도 남의 말만 믿고 따를 뿐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서둘러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뜬소문에 귀를 기울이기 좋아하는 사람은 하찮은 두려움에도 놀라 자빠진다. 지혜가 밝고 덕이 높은 사람은 불길한 일이 닥쳐도 그런 공포쯤에는 두려움에 떨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 과거 전생담인 자타카의 이야기이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외도들의 말을 듣고, 샷되고, 불투명한 수행에 빠져들게 되

질문의 진화

글 • 고희희(공감대학 개발원장)

고, 또 어떤 이들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사람들의 말에 속아 부동산이나 가상화폐에 열을 올리며, 생각 없이 마구 돈을 좇아 달려들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이렇게 유혹의 손길들이 호시탐탐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어떤 유혹에 빠져 들 수밖에 없습니다. 스님들이 출가해서 처음 배우는 '초발심자경문' 중에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계초심학인문'에서 이러한 경구가 나옵니다.

「소위사음수(所謂蛇飲水)하면 성독(成毒)하고 우음수(牛飲水)하면 성유(成乳)하야. 지학은 성보리(智學成菩提)하고, 우학(愚學)은 성생사(成生死)라 함이 시야(是也)니라. 우부득어주법인(又不得於主法人)에 생경박상(生輕薄想)하라. 인지어도(因之於道)에 유장(有障)하면, 불능진수(不能進修)하리니 절수신지(切須眞之)이다.」

「소위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듯이 지혜로운 이의 배움은 보리를 이루고, 어리석은 이의 배움은 생사를 이룬다 함이 이것이니라. 또 법주에게 업신여기는 생각을 내지 말라. 그로 말미암아 도에 장애가 되면 능히 나아가지 못하리니 간절히 삼갈지니라.」

위대한 불사(不死)의 경지인 열반에 이르게 하는 요건들 가운데 지혜가 제일이요, 그밖의 것들은 지혜의 부수적인 것이라고 자타카에서는 설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잘 배우는 사람은 생사를 뛰어넘어 정각을 이루나, 어리석은 사람은 오히려 생사윤회의 원인이 되는 일만을 거듭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선지식을 잘 모시우고, 언제나 공부인은 마음의 빛을 마음 안으로 돌이켜 비취 본다는 의미인 회광반조(回光返照)하시길 바랍니다.

- 불기 2562년 음력 4월 초하루 법문(2018년 5월 15일)

2013년에 만들어진 영화 히(Her), 주인공 테오도르는 '당신에게 귀 기울여주고,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말동무가 되어 줄 존재'라는 OS 광고를 보고 호기심으로 OS를 구입합니다. 그것은 휴대폰보다 약간 작은 크기의 기기이고, 그 안에 사만다라는 여인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주인과 대화하고, 이메일을 정리하고, 일정을 관리 해주며, 테오도르의 글을 모아 출판사로 보내기도 합니다. 사만다는 수백만 프로그래머의 개인 인격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OS이고, 매 순간 진화한다고 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테오도르는 사만다와 서로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테오도르는 사만다가 자신과 대화하는 중에

도 8,316명과 동시 대화를 하고 있고, 641명과 사랑에 빠졌다는 말을 듣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혼한 아내와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편지를 씁니다.

5년이나 지난 이 영화가 공상과학 영화일까요? 지금의 현실을 조금 과장한 것뿐일까요? 이미 아시겠지만 요즘도 휴대폰 안의 OS에게 질문하면 바로 답을 주고, 거실에 놓은 스피커처럼 생긴 AI가 이야기의 상대가 되기도 하고, 분위기에 맞는 음악도 골라줍니다. 알파고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바둑 프로그램으로 더 이상 사람과의 대국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은퇴시켰다고 합니다. 기계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급속도로 늘고 있고, 인

간의 고유영역이 어디까지인가에 의문이 드는 시대입니다.

테오도르가 솔깃했던 광고 문구 ‘귀 기울여주고,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존재가 인간이 서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로 그것을 원하지만 서로에게 그렇게 되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OS의 관계가 아니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귀 기울이고, 이해하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하겠지요?’

사만다가 테오도르에게 한 것처럼,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것을 내가 먼저 상대에게 한다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공감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질문하기’입니다. 상대가 말을 했다면 그 말을 그대로 따라 하면서 질문하는 것(앵무새 질문하기)이고, 내가 먼저 말하는 것이라면 명령하지 않고 질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던 것들을 질문으로 바꾸려

면 굳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습관을 바꾸기는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첫 단계는 명령의 끝을 질문형으로만 바꾸십시오. ‘이 닭아라라는 명령은 이 닭을래?’로 바꾸십시오. 그다음에는 질문이 조금씩 진화해야 합니다. ‘밥 먹고 바로 이 닭는 것이 좋겠지?’라고 질문이 진화하고, ‘다 먹었으니 1분 후에 이 닭을까?’, ‘식후 3분 이내 이 닭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바로 닭을래?’, ‘건치를 만들기 위해 지금 이 닭을까?’, ‘충치균이 생기기 전에 이 닭기를 바라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등으로 다양한 질문을 만드셔야 합니다.

질문으로 공감하는 대화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1 - (상대의 말에) 앵무새 질문하기

자녀 : 아빠, 오늘 단축 수업했어요.
아빠 : 오늘 단축 수업했구나? 그래서 집에 일찍 왔어?
자녀 : 아니요, 친구들과 피시방에 갔어요.
아빠 : 친구들과 피시방에 갔구나?

자녀 : 네.
아빠 : 재미있었어?
자녀 : 네.
아빠 : 피시방에서 게임하면 속도감 있고 재미있니?
자녀 : 네, 피시방 컴퓨터는 우리 집보다 짱 빨라요.
아빠 : 피시방은 짱 빠르지? 속도감으로 시원했겠네?
자녀 : 네.

예 2 - (내가 먼저 말할 때) ‘명령하지 않고 질문하기’ + ‘앵무새 질문하기’

아빠 : 밥 먹었으니 이 닭을래?
자녀 : 이따 닭을래요.
아빠 : 이따 닭을 거야?
자녀 : 네.
아빠 : 몇 분 후에 닭을 거야?
자녀 : 30분 후요.
아빠 : 30분 후에 닭으려고 하는구나?
자녀 : 네.
아빠 : 식사 후 3분 이내가 가장 효과적이라. 30분은 좀 길다고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자녀 : 지금 귀찮아요.
아빠 : 지금은 귀찮구나?
자녀 : 네.
아빠 : 아빠도 그랬었지.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지. 치과에서 많이 아프게 치료받았거든. 너는 그렇게 아픈 경험을 안 하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자녀 : 그래도 이따 닭을래요.
아빠 : 그렇구나. 알겠다. 30분 되면 알려줄까?
자녀 : 네.
공감하며 대화하면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서로 성장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위 예와 같이 자신의 결정대로 하려고 하면 그 결정을 존중하여 주어야 합니다. 물론 그 결정으로 타인이 고통을 받는 것은 정지시켜야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신의 결정에 따라오는 결과를 인식하면서 인연법을 체득하겠지요?

법정 스님이 사랑한 음악 - ②

글 • 백형찬(서울예술대 교수)

스님은 음악에는 강력한 연상 작용이 있다고 했다. 스님이 인도여행에서 돌아와 서울 이태원에서 인도 사람이 경영하는 음식점에 들렀을 때, 힌두 음악이 흘러나왔는데 그 음악은 스님을 사람과 릅샤와 오토바이와 소로 혼잡을 이룬 바라나시의 옛 거리로 데려갔고, 갠지스 강가에서 목욕하던 시끌벅적하던 풍경과 해 질 녘 아라비아해 연안에서 일몰을 지켜보던 봄베이의 활동 같은 해안선이 밀물처럼 다가왔던 풍경으로 데려갔다. 또한 음악은 그리운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게도 한다고 했다.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삼중주를 들으면 다래헌 시절, 같은 절에 살면

서 강 건너 일을 많이 거들어주던 한 젊은이가 새로운 터전을 찾아 태평양 너머로 떠나던 날이 생각난다고 했다. 그날은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었는데, 일주문 밖에서 작별하고 들어와 하루 종일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음악을 들으면서 서운한 석별의 정을 달랬다고 했다. 그 후에도 그 음악을 들으면, 가을비 내리던 날 그 젊은이를 떠나보내던 기억이 되살아난다고 했다.

스님이 인도로 여행을 떠날 때 옷가지와 약품 그리고 몇 권의 경전을 넣은 조그만 배낭 하나와 카메라, 안내 책자, 필기도구를 넣은 어께 가방 하나를 가져갔다. 최대한 간편하게 여

행하기 위해서였다. 인도는 스님에게 불타 석가모니이고, 마하트마 간디이며, 크리슈나무르티였다. 이 세 사람은 스님이 수도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정신적 스승들이었다.

스님이 캘커타의 밤 시간에 거리를 나갔다가 우연히 인도의 고전무용 공연이 열린다는 광고를 보았다. 스님은 인도의 전통 악기인 시타르 음악을 좋아했다. 특히 시타르의 독보적 연주자인 라비상카의 연주를 녹음테이프를 통해 늘 즐겨 듣고 있었다. 그 시타르의 연주를 직접 보고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연장에 들어서자 시타르의 연주에 맞춰 무용수들이 인도 전통 춤을 추고 있었다. 스님은 그토록 좋아하는 시타르 연주를 가까이서 들으려는 무척이나 행복했다.

스님은 꼭 클래식 음악이나 종교 음악이 아니더라도 가요를 비롯해서 동요도 즐겼다. 스님이 인도를 여행하면

서 떠나온 고국의 산천과 그리운 얼굴들이 떠오를 때면, '인생은 나그넷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하고 가수 최희준의 《하숙생》 노래를 휘파람으로 불렀다. 또한 스님은 내의를 빨면서도 그리고 빨랫줄에 빨래를 널면서도 휘파람으로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지를 부르곤 했다. 그 노래는 서정주 시인의 《푸르른 날》을 가수 송창식이 불러 많은 사람이 애창했던 노래였다.

다래헌 시절, 신문 기자로 일하던 한 여성이 스님을 찾아올 때마다, 임희숙의 《진정 난 몰랐네》를 부르곤 했는데, 스님이 빗줄기 속을 운전하며 달리던 차 안에서 우연히 그 노래를 듣자 문득 수십 년 전에 생머리의 짧은 치마를 입었던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했다. 불일암 시절, 큰 절에서 수련 중인 여고생들이 올라와 영롱한 목소리로 동요 《옹달샘》을 부르곤 내려갔다. 그 후로 불일암 대숲과 모란

발 사이를 뛰어다니는 토끼를 보면 그때의 노래가 귀에 들리는 듯하다고 했다. 또한 스님은 자동차로 멀고 지루한 길을 달릴 때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야나가 연주하는 곡을 들었다. 야나의 역동적이면서도 감미로운 가락이 쌓인 피로를 말끔히 씻어 준다고 했다. 손수 운전하는 자동차 속에서도 빠른 속도로 연주하는 야나의 곡을 즐겼다. 이처럼 스님은 모든 장르의 음악을 좋아했다.

스님 곁에는 늘 세 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차와 책과 음악이었다. 마실 차가 있고, 읽을 책이 있고, 듣고 즐기는 음악이 있음에 늘 고마워했다. 스님은 이 세 가지 이상을 바라지 않았다.

이 세 가지면 살림살이는 넉넉하다고 생각했다. 그 이상은 사치라고 여겼다. 차와 책과 음악은 스님의 삶에 생기를 북돋아 주었고 언제나 스님을 녹슬지 않게 거들어 주었다고 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무척이나 고맙다고 했다. 스님은 언젠가 지냈던 모든 것을 놓아 버릴 때가 반드시 온다고 했다. 그때 아까워 망설인다면 그것은 잘못 살아온 것이라 했다. 그러니 때때로 큰마음 먹고 놓아 버리는 연습을 미리부터 익혀 두어야 한다고 했다.

스님이 잃었던 건강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을 때, 전에 듣던 음악을 들으니 눈물이 울컥 났다고 했다. 건강을 되찾아 귀에 익은 음악을 다시 들을 수 있고 손수 채소를 가꿀 수 있다는 사실에 고마워하고 또 고마워했다. 그러면서 몸이 건강할 때 매 순간을 잘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곤 했다.

나는 작년 봄에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를 찾았다. 법정 스님께 인사드리려고 유해가 모셔져 있는 진영각으로 향했다. 안에는 스님이 늘 가까이 두고 사용했던 유품들이

가지런히 전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한 쪽에 손바닥만한 라디오가 놓여 있었다. 그 라디오가 바로 스님이 곁에 두고 음악을 즐겨 들었던 라디오였다. 그 라디오를 보는 순간, 스님과 똑같이 주파수를 맞추고 클래식 음악방송이 듣고 싶어졌다. 그래서 모델 번호를 메모하고는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뒤졌다. 그러나 너무 오래된 모델이

라 구할 수가 없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라디오를 찾고 또 찾다가 드디어 찾았다. 그때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그 라디오는 지금 내 곁에서 늦은 밤이면 클래식 음악을 잔잔히 들려준다. 난 강원도 오두막에서 라디오를 켜고 음악을 즐기는 스님처럼 음악을 즐기고 있다.

- 2018년 맑고 향기롭게 강연회(일요특강) - ‘장애 인권’에 대해서

7월 22일(넷째 일) 오전 11시 / 설법전

고현희 / 공감대화개발원장

불교의 근본 사상은 지혜와 자비, 생명 존중과 평등일 것입니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민주적 인권선언인 것입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는 11월까지 '인권' 전문 강사를 모셔서 일요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청강을 부탁드립니다.

길상사에서 법정스님의 숨결을 느끼다 ②

글 • 홍정근

법정 스님 진영각 내부에 가지런히 전시된 유품 중에는 조그마한 의자 그림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 사는 여동생의 딸이 열두 살 때 그린 불일암의 '빠빠용 의자'다.

'빠빠용 의자'는 스님이 불일암에 계실 때 참나무 장작개비로 손수 만든 의자로 스님의 '무소유'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소박하고 정겨운 의자다. 그러한 의자를 열두 살 아이가 그렸다는 것에 스님은 보자마자 감탄하였다고 하는데, 어린아이의 천진한 정성이 담겨 있어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현재 진영각 마당에 있는 나무 의자는 40년 경력의 목칠공예가 이관섭 선생이 빠빠용 의자를 모티브로 만든 목

공예 작품이다.)

의자 그림 옆에는 그림이나 사진 한 장 없이 그저 글자만 촘촘히 박혀 있는 책 한 권이 있는데, '녹색평론'이다. 스님은 한 달에 한 권 맑고 향기로운 책을 선정하여 읽기를 권했었는데, 2008년 1월과 8월에 녹색평론사에서 펴낸 리 호이니카의 '정의의 길로 비틀거리며 가다'와 발행인 김종철 교수의 서문을 모은 '비판적 상상력을 위하여'를 추천한 바 있다. 당시 스님은 "내 개인적인 느낌일지 모르지만, 이 책의 행간에서 김종철의 진솔한 삶의 모습을 함께 느낀다."라고 하였으며, 맑고 향기롭게 10주년 대구 경북대 강연(2003년 10월 4일)

에서 '대구하면 생각나는 것 중의 하나가 녹색평론이다.'라고 할 정도로 녹색평론을 가까이하셨다.



녹색평론 바로 옆에는 'KIBO HUT 아래 맑고 향기롭게 연꽃스티커가 붙어있는 사진과 '법정 스님의 친필메모가 있는데 '아프리카 킬로만자로의 우후루봉(UHURU PEAK, 해발 5,950m) 등반길, 그 마지막 휴게소인 키보 산장(KIBO HUT, 해발 4,750m)에 붙여진 '맑고 향기롭게, 스티커. 우리 회원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붙여 놓은 것, 그러니까 가장 높은 지대에서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

우고 있는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 그리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두메산골에서 건전지를 넣어 세상 소식과 클래식 음악을 들었던 트랜지스터라디오는 SONY에서 1988년 출시되어 1992년 단종된 아날로그 다이얼 기종(ICF-7601)으로 본체가 조금 큰 편이지만 음질이 좋다고 한다.

진영각에는 또 한 분의 스님 사진이 사각 종이상자 안에 잘 보관되어 있는데, 효봉 스님(1888~1966/세수 88세/법랍 44세)의 영정 사진이다. 사진에는 단기 4286(1953년) 9월 19일 曉峰大師(효봉대사)라고 적혀있다. 효봉 스님의 법명은 학눌(學訥)로서, 개화의 물결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26세에 와세다 대학 법과를 졸업한 뒤 10년 동안 판사 생활을 하면서, 시비와 선악으로 얽힌 티끌 세상이 몸담을 곳 아님을 깊이 깨닫고 문득 집을 나와 방랑하기 3년, 38세에 금강산 신계사 보운암 석두화상(

石頭和尚) 문하로 출가하여 이후 밤 낮으로 수행을 거듭하였는데, 한번 앉으면 절구통처럼 움직이지 않아 ‘절구통 수좌’라는 별명을 얻은 법정 스님의 은사(恩師)이다.

유품 중에서 방문객들이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장이다. 자기 질서를 위해서 빈틈 없이 엄격하셨던 스님은 입적하기 전 “어리석은 탓으로 제가 저지른 허물은 앞으로도 계속 참회하겠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다면 모두 “사(사)맑고 향기롭게”에 주어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활동에 사용토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동안 풀어 놓은 말빛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으려 하니, 부디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유언장과 상좌 스님(덕조, 덕인, 덕문, 덕현, 덕운, 덕진, 덕입)들 간에 신의와 예의로 서로 존중하고 합

심하여 맑고 향기로운 도량을 이루고 수행하기를 당부하는 글을 남기셨다.

스님은 유서를 두 번 남겼다. 첫 유서는 47년 전(1971년)에 쓴 ‘미리 쓰는 유서’이다. 거기서 스님은 자신의 장례식 풍경을 “내가 죽을 때에는 가진 것이 없을 것이므로 무엇을 누구에게 전한다는 번거로운 일도 없을 것이다. 본래 무일물은 우리들 사문의 소유관념이니까 그래도 혹시 평생에 즐겨 읽던 동화책이 내 머리맡에 몇 권 남는다면, 아침저녁으로 “신문이오”하고 나를 찾아주는 그 꼬마에게 주고 싶다. 장례식이나 제사 같은 것은 아예 소용없는 일. 요즘은 중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한술 더 떠 거창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토록 번거롭고 부질없는 검은 의식이 만약 내 이름으로 행해진다면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몹시 화나게 할 것이다. 평소의 식탁처럼 간단명료한 것을 즐기

는 성미니까. 내게 무덤이라도 있게 된다면 그 차가운 빛들 대신 어느 여름날 아침부터 좋아하게 된 양귀비꽃이나 모란을 심어 달라 하겠지만, 무덤도 없을 테니 그런 수고는 끼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쓴 바 있다.

스님의 마지막 유언은 47년 전의 ‘미리 쓰는 유서’를 잊지 않은 유서였다. “검은 장례식을 하지 마라. 수도 짜지 마라. 평소 입던 무명옷을 입혀라. 관(棺)도 짜지 마라. 강원도 오두막의 대나무 평상 위에 내 몸을 놓고 다비해라. 사리도 찾지 마라. 남은 재는 오두막 뜰의 꽃밭에 뿌려라.”라고 상좌 스님과 가까이하셨던 맑고 향기롭게 임원들에게 신신당부하셨다.

병상에 계시던 스님께 누군가가 ‘이제 스님을 어디서 뵈 수 있을까요?’라고 묻자, 불일암에 오라고 하셨다. 다리가 아파 못 올라갈 것 같다고 하니, 그럼 길상사에 오면 만날 수 있을 거라 말씀하셨다고 한다.

진영각에서 법정 스님의 자취를 느끼고, 극락전 방향으로 내려오다 보면, ‘침묵의 집’이 보이는데, 6~8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방이다. 다른 절과 달리 명상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있다는 것은 길상사만의 매력일 것이다. 현판은 날렵하고 군더더기가 없는 법정 스님의 서체이다.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서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꼭 필요한 말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유난히 침묵을 강조하셨던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침묵의 집’에서 잠시나마 바쁜 도심에서 지친 자신을 내려놓고 명상에 잠겨보았으면 한다. 그리고 길상사를 찾는 모든 이들의 걸음걸음마다 마지막까지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고, 남은 이들에게 맑고 향기로운 가르침을 전해주었던 법정 스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래본다.

7월 결연 대상자 - 김영훈(가명)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국 홀로 남게 된 어르신

1997년 11월 우리나라가 겪은 IMF 경제 위기는 그 당시 경제 주역으로 일하시던 분들과 가족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소득 40~50년대생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사연을 들어보면 대부분은 IMF 경제 위기로 인해 일할 곳을 잃게 되면서 가정이 해체된 사례가 많습니다. 소개 드리고자 하는 대상자 김영훈(가명) 어르신도 열심히 살아보고자 노력했지만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이 해체되었고 홀로 빛을 갠다 보니 어느새 도움을 요청해야만 하는 70대 노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르신은 90년대 초 서울에서 학원 운영으로 사업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교직에 있었던 동생이 우수한 선생님을 모셔오고 어르신은 경영을 맡아 성실히 학원을 운영한 결과였습니다. 어르신과 동생은 성공을 발판으로 학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7층 빌딩을 독채로 임대하고 약 30명의 선생님을 고용하여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다른 학원들이 생기고 금융위기를 겪으며 외부환경까지 나빠지자 학생들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빌딩 월세와 선생님들의 급여 등의 고정 지출은 늘어나면서 그동안 모아 두었던 자산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물론

수억 원의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학원이 망하자 동생은 말없이 해외로 도피해 버렸고 빚쟁이들의 독촉과 경제적 어려움에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홀로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공사장 벽돌 나르기, 건물 외벽 타일 붙이기 등 학원 운영 전에 공무원 생활을 했던 어르신에겐 생소한 육체적 노동이었지만 어르신은 본인의 사업 실패로 피해를 입은 주변 분들에게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악착같이 일을 했습니다. 어르신의 노력이 통했는지 지인들은 빛을 탐감해 주었고 결국 남은 빛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어르신은 어느새 7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기초적인 생계가 불안한 김영훈 어르신

어르신은 2014년도부터 무릎 관절 통증과 목 디스크가 심해져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극심한 통증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2015년도에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되어 매월 약 60만 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로 매월 40만 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어 실질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20만 원 내외입니다. 이 안에서 교통비, 비급여 의료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먹고 입는 것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이 충분한 영양섭취를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25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어르신이 건강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은 소식지 소개와 더불어 인터넷 다음 카카오톡 같이가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의 문학적 가치를 되새기고, 어린이들에게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알리고자,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제2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길상사에서 개최 하였습니다. 이에 6월호와 7월호에 나누어 운문 수상작과 산문 수상작을 수록합니다.

〈저학년 산문〉

무소유상(장원)

새로 온 가족 뽕이

박유빈 / 서울 중평초등학교 3학년

나는 중국에 4년 동안이나 살다왔다. 한국에 온지 얼마 안돼서 나에게 새로 온 가족이 생겼다. 나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말에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았다. 귀엽고, 하얗고, 아주 작은, 예쁘장하게 생긴 강아지였다! 그 강아지 이름은 '뽕'이라고 했다. 엄마가 그러시는데 할아버지가 뽕이를 안고 있으셨을 때 뽕이가 할아버지 품에서 뽕~ 튀어 올라서 뽕이라고 지으셨다고 하셨다. 처음에 뽕이를 만났을 땐 조금 어색하고 무서웠다. '나를 혹시 마음에 안 들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 나는 뽕이가 너무 무서워서 안지도 못하고 쓰다듬지도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용기를 내서 꼭 뽕이를 만져 보겠다고 몇 번을 다짐했다.

한번은 내 사촌 쌍둥이 동생들이 놀러왔을 때 뽕이가 동생들이 너무 무서워 나한테 찰싹 달라붙었다. 평상시에 이랬다면 좋았을테지만 나에게게는 그게 그림의 떡일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 중에서 뽕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아빠이기 때문이다.

뽕이가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아빠가 가는 방은 다 따라가고 외출하시면 문 앞에서 기다리기 때문이다. 심지어 아빠가 냄새나는 똥을 싸때도 머리로 문을 밀어서 그 지독한 향을 풍기는 아빠 똥 냄새를 맡으면서 그대로 있는다. '우웬!' 내가 만약 뽕이었다면 1초도 안 돼서 토했을거다.

날이 갈수록 나는 뽕이에게 익숙해져 갔다. 이제 내가 뽕이에게 내 무릎을 툭툭 치며 '이리워'라고 하면 곧 바로 공 같이 작은 발로 빠른 속도로 나에게

안긴다. 하지만 아직도 뽕이의 인기남은 아빠다. 뽕이에게 잘 해줘 봐야 아빠, 엄마, 나 중에서 3등이 최대다. 하지만 언젠가 나, 엄마, 아빠가 동시에 뽕이에게 "이리워"라고 말할 때 뽕이가 나에게 달려왔다!! 아빠가 있었는데도……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멈춰 버리는 줄 알았다. 너무나너무 기분이 좋았다. 때로는 뽕이가 알미를 때도 있지만, 나는 형제자매가 없기 때문에 뽕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뽕이는 나보다 1살 많은 11살이다. 강아지 나이로는 할아버지 나이라고 엄마아빠가 그러셨다. 나는 우리 사랑스러운 뽕이가 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내가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면 꼬리를 사랑살랑 흔들며 나를 반겨 줬으면 좋겠다!

맑음상(차상)

통일이 되면

엄세윤 / 서울 돈암초등학교 2학년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사람들은 좋아질텐데 왜 통일을 안 할까?

통일을 하면 북한의 맑은 공기를 느끼면서 여행도 갈 수 있고, 멋진 백두산도 볼 수 있는데 진짜 왜 통일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60년 전쯤 사람들이 마치 나뭇잎이 떨어진 것처럼 헤어졌다.

나는 북한이랑 통일이 되면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게 멋진 백두산을 보고 싶다.

두 번째는 기차타고 여행을 가고 싶다. 여행가서 북한 친구들이 학교 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학교에서 영상을 봤는데, 북한 친구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신기했다. 아침에는 같이 모여서 학교를 가고 점심에는 밥을 집에서 먹는다. 우리랑 다르니까 어색하면서 신기했다.

공기놀이 중에 달팽이라는 게 있다. 달팽이는 공기를 던졌다가 하나씩 두 개씩 모으는 놀이다. 공기가 떨어져 있으면 달팽이를 하면 모아지는 것처럼 통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너구리네 가족

강민서 / 서울 신가초등학교 1학년

너구리 가족이 먹이를 찾고 있다. 먹이를 찾았다. 이제 먹이를 찾았다. 먹이를 집으로 가져가야 한다. 집으로 가져가서 음식을 만든다. 도토리 수프! 막 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참 먹음직스럽다. 네 가족이 식탁에 둘러 앉아 맛있게 먹는다. “남남 짹짹” 정말 맛있다.

다음 요리는 솔방울 커피! 가족끼리 먹으니 더 맛있다. 요리사 너구리 가족! “여행가자!” 아빠 너구리가 말했다. “그래요. 어디로 갈까요?” “바나나 숲으로 가요, 아빠!” 아기 너구리가 말했다. 다 같이 여행! 모두 함께 출발! 너구리 가족은 악어를 만나서 잡아먹힐 뻔 했다. 아기 너구리가 거미를 잡아서 악어 입에 넣었다. 악어는 거미를 무서워했다. 악어가 무서워하는 사이 무사히 도망쳤다. 안전하게 바나나 숲에 도착! 바나나를 남남 맛있게 먹고 바나나 호텔에서 쉬고 너구리네 집으로 돌아갔다.

나의 키즈폰

황세원 / 서울 신상도초등학교 2학년

작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나서 친구들 모두가 키즈폰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녔다. 나도 무척 키즈폰을 갖고 싶었다. 그래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졸랐다. 엄마는 “우리 세월이 안 사주면 병나겠네...” 하면서 사주셨다. 처음에 신나고 기뻐다. 친구들과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하루가 빨리 지나갔다. 키즈폰은 내 보물 1호였다. 부딪혀서 깨질까봐 조심조심, 손을 씻을 때도 물이 들어가서 고장이 날까봐 조심조심해야만 했다. 매일 키즈폰에 신경 쓰느라 숙제도 못하고 공부하는 시간도 줄었다. 하루 종일 키즈폰만 들여다

보고 있어서 부모님께 혼나는 일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조금씩 조금씩 금이 나고 망가지면서 고장이 났다. 슬펐다. 키즈폰을 사용하지 않게 되니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손을 씻을 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숙제가 밀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동생과 노는 시간이 많아졌다. 친구들과 연락은 학교에서 말하면 되고 키즈폰이 없다고 해서 불편한 것이 없었다. 키즈폰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나니 그동안 엄마에게 졸랐던 것이 미안했다. 친구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욕심을 버리고 잘 생각해서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것만 가져야겠다. 그것이 바로 ‘무소유’라는 것을 알았다.

무소유와 법정 스님

조현준 / 서울 을지초등학교 1학년

7살 때는 무소유가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한 살을 더 먹고 나서 금요일에 무소유와 법정 스님에 관한 책을 봤다. 무소유가 가지지 않고 가진다 해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 준다는 것을 알았다. 또 법정 스님은 훌륭한 일을 했다는 것도 알았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무소유라는 생각을 알려주고 자기가 직접 실천을 한 게 가장 훌륭한 점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나는 왜 부족한 것 같냐면 무얼 뒤을 때 2장씩 휴지를 쓰고 딱 한번 비누를 손으로 물러트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물건을 아끼며 생활하고 소중히 다루어야겠다. 법정 스님과 무소유라는 말을 기억해야겠다.

소중한 우리 가족, 골든

신지민 / 인천 골현초등학교 3학년

오늘은 신나는 주말! 나는 눈을 비비며 시계를 보았다. 바늘이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멍멍!”

내 애완견 골든이 부르는 소리다. 골든은 3살이고, 골든 리트리버이다. 골든과 뒹굴고 놀면 참 재미있다.

“왹!”

골든이 짖는 소리가 날 깨우는 알람 소리 같다.

“윤아야! 골든이 일어나래!”

엄마께서 부르시는 소리에 발탁 일어나 기지개를 켜다. 골든이 내 얼굴을 할짝할짝 핥았다.

“윤아야, 주말이니까 아침 먹고 골든이랑 산책 다녀오는 것 어때?”

“네!”

나는 골든의 밥그릇에 사료를 부어주었다. 엄마께서 깎아 주시는 사과를 먹고 골든의 목에 목줄을 채웠다.

“다녀오겠습니다!”

“컹컹!”

골든도 웃는 얼굴로 짖었다. 현관문이 닫혔는지 확인하고 우리는 공원으로 향했다.

“멍멍멍!”

골든이 흥분해서 날뛰었다. 참 오랜만에 돌아서 하는 산책이다.

“골든, 너도 기분 좋지? 공기도 맑고, 바람도 시원하고…….”

가족은 기쁜 일과 슬픈 일을 함께하는 거라지만 산책할 때는 항상 기쁘다.

그래도 우리는 산책할 때마다 슬픈 이야기도 나누곤 한다. 오늘도 그랬다.

“골든, 내 반에 우재라고 있는데, 자꾸 날 괴롭혀.”

그러면 골든이 황금빛 앞발을 내 무릎에 살짝 올려놓곤 한다. 내가 골든을

꼭 안아 주면 우리는 공원 벤치에서 뒹굴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따갑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는데, 또 산책을 나갔다. 내가 벤치에서 책을 읽는 사이, 골든이 목줄이 풀린 채로 없어져버렸다. 나는 집으로 뛰어가 부모님께 전했다.

“엄마, 아빠, 골든이 사라져버렸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우리 같이 찾아보자.”

일주일 후, 동물보호소에서 골든을 찾게 되었다. 그 후, 우리 가족은 골든을 더욱이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골든은 우리 소중한 가족이다. 아무리 반려견이라고 해도, 슬픈 일, 기쁜 일을 함께하고, 한집에 살며 무엇이든 나누어주고 무엇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니까.

〈고학년 산문〉

무소유상(장원)

무소유가 주는 행복

권단아 / 서울 이수초등학교 6학년

나는 얼마 전 무소유의 행복을 느꼈다. 내게는 엄청나게 많은 레고가 있다. 그 레고들은 내 보물 1호였고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어린 내 동생은 내 레고를 너무 만지고 싶어 하였다. 난 레고 한 조각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내 동생이 레고에 손을 못 대게 매일 레고 상태를 점검하곤 했다. 결국 동생은 자기도 레고를 가지고 놀고 싶다며 떼를 쓰는 작전을 내세웠다. 그 때문에 가족들의 불만은 모두 나를 향하게 되었다.

엄마는 “권단아! 너 그렇게 동생한테 양보 안하면 엄마가 레고 싹 다 버려 버린다! 얼른 동생한테 양보해!”

나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 결국 나는 동생에게 레고를 마음껏 가지고 놀게 해줄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나의 소중한 레고를 동생이 부수고 망가

뜨리는 것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동생이 사사건건으로 미웠다. 동생은 좁쌀만 한 레고를 잃어버릴게 분명했다.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내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나는 레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기로 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동생에 대한 미움도 사라지고 레고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일도 사라졌다. 레고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

내 것에 대한 집착이 나와 가족 모두에게 스트레스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소유의 고통을 알게 됐다. <무소유> 책에서 법정 스님도 비싼 난초를 기르느라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한다. 동생에게 레고를 가지고 놀게 해주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듯이 소유의 집착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 같다. 이 일을 겪은 후 나는 학교에서도 내 것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친구가 지우개나 연필을 빌려 달라고 하면 선뜻 내주었다.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자신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신경써야 한다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유를 통한 행복은 스트레스와 짜증도 함께하므로 진정한 행복은 아닌 것 같다.

얼마 전 우리 엄마가 운전하고 있던 차가 교통사고가 나서 우리 가족의 보물이었던 차를 폐차시켰다. 워낙 우리 차를 아꼈던 아빠는 절망에 빠지셨다. 차가 있다가 없으니까 많이 불편하기도 하였지만 기름 값도 들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니 오히려 한 달 생활비가 줄어들었다. 가끔은 이런 무소유 생활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스님들은 가진 것 하나 없이 정말 검소하게 생활하신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물질적인 행복을 느끼기 마련이다. 나도 무엇인가를 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자꾸만 무엇인가를 사는 게 정말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대인들은 무소유를 싫어하기 때문에 스님들처럼 사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번 무소유 글짓기 대회를 통하여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삶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는 기회를 얻게 되어 좋았다.

길상사

강승민 / 서울 석계초등학교 4학년

차에서 내리니 기분이 상쾌했다. 화단 쪽을 보니 새끼 손톱만한 앙증맞은 작은 보라색 꽃들이 웅기중기 모여 피어 있었다. 길상사로 가려고 하는데 주황색 바탕에 검은색 원 무늬가 화려한 나비 한 마리가 펄럭펄럭 날아다녔다. 어릴 적 때가 생각났다. 나와 아버지는 아파트 뒷동산에서 나비를 잡고 있었다. 아버지는 커다란 날개에 파란색과 검은색이 멋지게 어우러진 나비의 날개를 손으로 잡으며 말씀하셨다.

“이 나비 날개가 참 화려하구네! 승민아, 한번 만져 볼래?”

“징그러운데... 아빠, 이제 나비 날려줘요. 네?”

아버진 나비의 날개를 놓아 나비가 날아가게 해 주었다. 조금 있다가 나는 “아빠! 나비 또 잡아줘요!”라고 말했다. 아빠는 “날려주었잖아?”라고 하셨다. 힘도 들고 배도 고파 집에 가고 싶은 나는 나비 잡기를 포기했다.

어릴 적 일을 생각하니 나비를 잡아보고 싶었다. 나비를 눈으로 쫓으며 살금 살금 걸어가 손을 뻗었다. 그때 나는 깜짝 놀랐다. 나비가 벽을 넘어 길상사로 쏙 하고 들어가 버린 것이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바쁘게 오갔다.

‘나비가 하필 길상사로 왜 간 거지? 부처님이 자길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걸까? 궁금해~’

‘아님 법정 스님이 환생하셔서 나를 길상사로 인도하시려는 걸까?’

나비가 길상사 안으로 가니 길상사가 더 신비롭고 성스럽게 느껴졌다. 길상사 입구에 있는 문이 나를 감탄하게 만들었다. 길상사 대문 위에 ‘삼각산길상사’라고 써져 검은 나무판은 웅장하고 당당한 느낌이 들었고, 분홍빛의 연꽃이 그려져 있어 너무 화려하고 예뻐다. 그리고 체험에서 배운 오방색도 들어가 있었다. 오방색은 빨강, 파랑, 하양, 검정, 노랑이 있다. 그리고 위에 두 용이 뒤엉켜 싸우고 있는 것도 있었다. 아마 청룡과 흑룡인 것 같다. 나는 청룡과 흑룡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 옛날 하늘에서 쫓겨난 흑룡이 인간 세상에서 행패를 부리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하늘에 기도들

해 하늘에서 청룡이 내려와 흑룡과 싸워서 이겨 사람들을 편안하게 수호해 준다는 이야기다. 이야기를 하니 더 공감이 잘 됐다.

푸른 나무와 아름다운 꽃들이 길상사에 가득 있었다. 나무와 꽃을 보니 마음이 편해졌다. 그때 스님들의 염불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하시는 걸까? 염불 소리가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 소리 같았다. 알록달록한 색깔의 등들도 너무 아름다웠다.

나는 에밀레종처럼 생긴 종을 보았다. 이름은 에밀레종이 아니라 범종이라고 써져 있었다. 범종은 푸른색과 녹색의 중간 정도의 색이었다. 범종은 선녀와 꽃이 새겨져 있어 아름답고 신비한 느낌이 들었다.

이제 황금 불상을 보았다. 부처님은 맑고 향기로운 표정을 하고 계셔 할머니처럼 온화하고 무척 인자하게 보였다.

법정 스님과 부처님이 계신 길상사는 내 마음을 편하게 해 귀엽고 사랑스러운 내 조카들과도 함께 가보고 싶은 곳이다.

을 것 같다. 나는 돈에 집착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래서 엄마에게 혼난 적도 있었다. 그랬었던 내가 이제는 돈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됐다. 지금이 훨씬 흥분하고 행복해졌다. 누구보다도 아버지께서 좋아하셨고 나를 격려해 주셨다.

“소유욕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라며 “우리 딸이 수준 높은 책을 읽고 더 성숙해졌네.”하시며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볼 때 나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다. 내가 지금까지 쓴 것으로 되돌아보니 소유라는 것은 어떤 물건 또는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나를 변화시켰으니 말이다. 글짓기의 주체가 무소유인데 무소유란 없음무와 소유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 즉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마음은 더 부자가 되니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

내 친구 중에도 예전에 나처럼 돈을 펍 펍 쓰는 아이가 있다. 나는 그 친구가 돈을 펍 펍 쓰는 것을 볼 때마다 샘이 나고 부러울 때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다. 나도 돈을 쓸 때 저 희열과 느낌, 기분을 알지만 돈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저 희열과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친구는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무소유를 실천할 수 있도록 내 나름의 3계명을 세우기도 했다.

첫째, 미니멀 라이프를 조금이나마 실행해라 실행하는 방법은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버린다. ‘나중에 누군가에게 줘볼까?’하고 남겨 두었던 것도 가차 없이 버린다. 그렇게 하면 물건을 살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

두 번째, 돈을 쓸 때 ‘이것을 지금 사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과 내가 사고 싶은 것도 한 번 더 생각한다. 이것을 실행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사야 할 품목은 미리 적어 두었다가 꼭 필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하고 구해한다.

마지막으로 내 자신이 무소유를 실천하며 느낀 점을 적어본다. 소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무소유를 실천하는 것은 더 많은 기쁨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무소유 칭찬 메모장을 만들면 좋다. 친구와 함께 무소유를 실천하면서 그 기쁨과 뿌듯함을 공유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맑음상(차상2)

맑고 향기롭게

안송현 / 서울 이수초등학교 6학년

나는 지금까지 돈이 많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글짓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으면서 돈이 많아야만 행복하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다니면서 돈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 엽기떡볶이도 사먹고 디저र्ट도 사먹을 때 행복을 느끼곤 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번에 임신을 하셨다. 그래서 돈 쓰는 것을 좋아하던 나는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사고 싶은 것도 참으며 돈을 아끼기 시작했다. 돈을 아끼기 시작하며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친구들이다.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다. 친구들 중에 돈을 가장 많이 쓰던 내가 갑자기 가장 적게 쓰고 아껴 쓰니 나 같아도 이상하다고 느꼈

냉면

김시우 / 서울 정덕초등학교 4학년

냉면은 메밀가루로 짙고 길게 면발을 만드는 것이다. 그 면발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옛날에는 지금보다는 기술이 없어 완전 자동인 기계를 만들지 못해서 떡방아나 손이나 모양 틀을 사용했었다. 냉면의 종류에는 물냉면, 밀면, 진주냉면, 모리카 냉면, 함흥냉면, 평양냉면, 옥천냉면, 서울식 냉면 등이 있다. 개인적으로 냉면을 먹을 때의 맛은 쫄깃쫄깃하고 살짝 달달하다. 은근 맛있다. 또 냉면은 얼음을 넣어 먹으면 시원한 맛이 동시에 들어온다. 냉면의 시초는 북한에서 만든 평양냉면이다. 지금은 6·25전쟁 때 삼팔선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평양냉면을 못 먹게 되었다. 김정은이 통일을 하면 평양냉면을 다시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8년 4월 27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해서 오후 9시 30분까지 했다. 그 중에서 밥을 먹을 때 평양냉면을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먹었다. 냉면의 재료는 냉면사리, 오이, 무 등이 있다. 냉면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냉면을 만들 때는 첫 번째로 면을 비벼서 굳어 있는 면을 푼 뒤에 뜨거운 물에 삶아서 차가운 물로 식힌다. 그런 다음에 육수를 넣어서 먹고 싶은 것들을 넣어서 먹는다. 그러면 냉면 만들기 성공이다. 이걸로 냉면에 대한 설명은 끝이다.

행복의 맑고 향기롭게

전유정 / 의정부 청룡초등학교 6학년

'맑고 향기롭게'란 아주 다양합니다. 그 안에서도 아주 다양한 덕목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맑고 향기롭게 실천하는 이웃들이 많아요. 그럼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러 가볼까요? 첫 번째 사연은 세상에 대한 맑고 향기롭게입니다.

'옛날 20세기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향기'입니다. 그의 부모님께서 '향기'라고 지은 이유는 그가 죄를 많이 만들지 말고 편안하게 극락에 가서 살기를 위하여 '맑고 향기롭게'의 향기를 집어넣어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타락한 친구들과 나날이 타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19살 때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반려견인 '길상'이가 로드킬을 당하여 죽을 고비를 아슬아슬하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상이를 위하여 부모님과 절에 나가서 매일 매일 불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함이 통하였는지 길상이는 나날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타락하였던 일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이름처럼 맑고 향기롭게 자연에 자신의 힘이 닿는 곳까지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맑고 향기롭게를 알리며 그가 얘기하였습니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란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하며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가꾸고 덜 쓰고 덜 버리는 것'입니다!"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생이라도 절에 나와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맑고 향기롭게를 실천하면 일생이 바뀌며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볼까요? 이 이야기는 마음에 대한 맑고 향기롭게입니다.

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는 글을 아주 잘 씁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찡그린 얼굴이었으며 욕심이 많고 자신이 버는 수입에 항상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를 뒤바꾸어 놓은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향기'입니다. 그는 자연처럼 모든 맑고 향기롭게의 덕목을 잘 실천하며 알리고 다녔습니다. 그런 '향기'를 보며 그녀는 마음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에 만족하며 욕심을 줄이고 화를 줄이며 매일은 아니지만 1주일에 4번 정도는 '향기'와 함께 알리고 다녔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사소한 행동 하나 하나가 상대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상의 맑고 향기롭게'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아주 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주변을 보면 날개 없는 천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날개 없는 천사들도 생활이 변변치 않는데, 우리 주변의 외로운 사람들과 결식 이웃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삽니다. 결이 씨는 1달 월급이 150만원입니다. 하지만 그 중 50만원은 결식이웃에게 30만원은 외로운 분

들에게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남은 돈은 총 70만원. 하지만 결이 씨는 20만원은 저축, 20만원은 떠돌이나 유기동물을 위하여 씁니다. 결이 씨는 날개 없는 천사로 유명해져서 ACE채널에서 인터뷰를 하였는데, 결이 씨의 말에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이 씨는 “비록 저의 삶도 변변치 않지만 저보다 더 힘든 지구의 이웃들은 많습니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의 덕목은 ‘나누어 주며 삽시다. 양보하며 삽시다.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라는 덕목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일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며 아직 반도 도움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많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날개 없는 천사들은 많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도 날개 없는 천사가 되어봅시다.

향기상(차하3)

길상사

이민지 / 서울 송덕초등학교 5학년

길상사…… 도심 속에 있는 절이다. 그러나 도시 숲처럼 도시와 자연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곳은 비밀이 하나 있다. 아직까지도 그 비밀을 밝힌 사람이 없다.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절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소리가 나오곤 한다. “우리 절의 비밀은, 깨달은 자만이 알 수 있다!”라고…… 스님들은 오래전부터 그 비밀을 알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 비밀을 풀지 못하고, 스님들은 하나, 둘 돌아가셨다. 어느 날, 백화 스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았다. 그래서 마음이 약한 백화 스님은, 부잣집에서 금괴와 다이아를 훔치다 걸려서 2년의 감방생활을 하고 절에서도 쫓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길을 선택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길상사 그 곳에서 죽고 싶었던 것이다.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된 것일까……” 그래서 백화 스님은 다리에 가서 떨어지려던 그때 누군가가 백화 스님의 손을 바짝 잡았다. 백화 스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좌절하지 말거라.” 그것은 부처의 영혼이었을까?

“나는 살아서 죄를 지었다. 난 어떻게 사람들이 존경하는 부처가 되었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좌절이 있는 것. 좌절하지 말거라.” 그러고는 일어났다. 백화 스님은 세월이 흘러, 끝내 비밀을 풀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나 백화 스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단지, ‘좌절하지 말거라’였다.

그리고 우리들은 모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기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또 저는 백화 스님처럼 좌절도 하곤 하였는데, 굳이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는 ‘이것’ 자체가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항상 용기를 가지세요.”

<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심사평 >

글 • 박형준(시인, 동국대 교수)

법정 스님은 「무소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을 버린 후에는 훨훨 날아서 가고 싶은 곳이 꼭 한군데 있다. ‘어린왕자’가 사는 별나라다. 법정 스님은 산 속의 승려만이 아니라 어린 왕자가 사는 곳을 동경하는 우리 주위의 친근한 동심을 가진 사람으로 다가섭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장미꽃에 하필이면 가시가 돋쳤을까 생각하면 짜증이 난다. 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에서 저토록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어났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하고 싶은 것이다.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바라보기, 바꾸어서 생각하기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스님의 ‘무소유’ 정신에서는 증오와 화가 없습니다. 조금만 달리 생각하여도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힘, 세상이 바뀌는 힘은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말 속에 진리가 담겨 있고, 글 속에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나누어 짊어진다 뜻이기도 합니다. 우

리에게는 우리 이웃의 기쁨과 아픔에 대해서 나누어 가질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형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스님의 이런 사고에서 우리는 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소탈하고 탈종교적이기까지 한 사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맑고 향기롭게 '제2회 무소유 글짓기 대회'에 참여한 우리 어린 학생들의 글에서 법정 스님의 이웃을 생각하는 맑은 동심과, 다르게 바라보면 달라져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한 자락을 봅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며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고, 읽고, 듣고, 쓰면서 느낀 소박한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일상에서 경험한 것을 꾸미지 않고 잘 표현하는 글은 우리에게 언제나 감동을 줍니다.

제가 심사평을 하기로 한 분야는 고학년 운문과 산문입니다.

고학년 운문 장원 서울소의초등학교 4학년 조현규 학생의 작품 「길상사」를 볼까요. 이 작품은 완성도가 높아요. 1연은 부처님 때문에 절이 생기고, 길상사가 생기고, 그래서 내가 길상사에서 절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인연법이죠. 인연법이란 아시다시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다들 어떠한 관계성이 있어서 우리가 만난다는 것이죠. 2연에 가면 관음보살님이 나옵니다. 길상사에는 관음보살님이 계시죠. 우리가 관음보살님하면 뭔가 근엄한 모습을 떠올리는데 길상사의 관음보살님은 한편으로는 자비의 부처님 상이고 한편으로 깊은 공경을 드리고 있는 가톨릭의 성모 마리아같은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나 신자나 지극한 신앙으로 지내고 싶은 염원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2연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는 것처럼 손을 들고 밥을 먹지 않아 빼빼 마른 관음보살님이 1자로 서 계시는 모습을 통해 신앙심과 연꽃으로 표상되는 세상과 이웃에 대한 공경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3,4연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관음보살님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소원이 세상에 맑은 향기를 날릴널리 퍼뜨리는 것이라는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연은 그냥 주어진 것 같지만 이렇게 서로

가 서로에게 지극한 마음을 가져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 학생은 의젓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학년 산문부 장원을 차지한 서울이수초등학교 6학년 권단아 학생의 「무소유가 주는 행복」은 레고 쌓기가 취미인 주인공이 부모님의 성화로 그만 레고를 너무 만지고 싶어 하는 동생에게 레고를 맡겼다가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 무소유를 배우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레고 한 조각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인공이 자신의 레고를 마음껏 가지고 노는 동생에 의해 레고 한 조각이라도 분실될까봐 노심초심하는 장면이 그야말로 생생하게 전해지는 글입니다. 그러다가 레고를 가지고 재밌게 노는 동생을 통해 자신이 너무 레고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자신의 집착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소유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무소유의 행복을 '소유의 고통'을 실감나게 토로하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은 많은 생각거리를 전해줍니다.

이렇게 고학년 학생의 두 장원 작품은 자신이 본 풍경이나 경험한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 우리 어른들에게도 많은 깨우침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백일장에 참여한 학생들의 작품에서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와는 달리 고학년의 글에서는 관념이 많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하면 자신이 세상에 느낀 사색을 글에 많이 담아낸다는 것인데, 그것이 잘못 나타나면 자신의 소중한 삶을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글을 쓰는 까닭은 나의 이야기나 생각을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이고, 그런 점에서 글짓기는 나의 마음과 생활을 드러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글을 쓸 때는 누군가에게 정말 들려주고 싶은 솔직한 이야기, 내 말에 꼭 귀 기울이게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정성스럽게 느낌을 살려 쓰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가 계속 이어져, 어린이들의 맑은 동심이 담긴 향기로운 글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8년 숲기행 맑고 향기로운 암자를 찾아서

1. 숲기행 일정 : 8월 25일(넷째 토요일)

일자	장소	숲 특성
8/25	대전사 주왕암	중국 고대의 주왕이 신라로 피신 와서 머물렀다는 주왕굴과 아들이 주왕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며 지은 절 주왕암

◆ 7월은 더위와 휴가철로 숲기행이 진행되지 않음

2. 접수 안내

-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 및 길상사 신도 : 매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접수 가능 (7월 2일 부터)
- 일반인 : 매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접수 가능 (7월 9일부터)

3. 탑승지

- 길상사 일주문 : 오전 6시 10분 / 한성대역 5번 출구 : 오전 6시 20분 / 양재역 2번 출구 : 오전 7시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세요)

4. 참가비

- 회원 및 신도 : 30,000원 / 일반인 : 40,000원

- 입금처 : KEB하나은행 257-890001-69804 / 예금주**맑고향**팀계
- 참가비 환불 원칙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할인 안내

- 전년도 3만 원 이상 후원 회원에 한하여 할인 가능하며 신규 회원은 후원금 납부하여 3개월 후 참여 가능
- 길상사 신도(신도증 소지자 등)
- 가족 참석은 직계 가족 인으로 한함

6. 접수방법

- 전화 및 방문 접수(02-741-4696)

전북 부안 내소사 지장암, 청련암 숲기행 후기

지난 5월 26일, 5월 숲기행으로 전북 부안에 있는 내소사 지장암, 청련암과 인근 숲을 탐

방했습니다. 처음 계획은 청련암만 참배할 생각이었지만 생각보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내소사 암자순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소사 일주문을 지나 박희준 숲 선생님이 들려주

는 꽃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에 경청하며, 3대 전나무 숲길 중 하나인 내소사 전나무 숲길을 함께 걸으며 지장암에서 참배 하였습니다. 지장암은 호남불교를 흥흥시킨 해안 선사 선종을 드높인 선 수행 도량으로 현재는 일지스님께서 수행 정진하고 계셨습니다. 일지스님은 조금 일찍 도착한 저희 일행을 반갑게 맞이 해주셨고, 준비해주신 연꽃차를 마시며 차담을 나누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 속에 툭툭 던지는 스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박희준 선생님은 일지스님의 스승이신 해안 선사의 선시를 낭독했고, 스님은 화답으로 오카리나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이 담긴 스님의 오카리나 연주는 듣는 이로 하여금 심금을 울리게 하였습니다. 갈 길이 바쁜 사람들을 너무 오래 잡았다며 공양하러 빨리 가라는 스님의 정감 있는 말씀을 끝으로 차담은 끝이 났습니다. 스님과의 차담이 남긴 여운이 계속 남아 지장암을 떠나 내소사로 향하는 길 내내 지장암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내소사에서 간단히 점심 공양을 하고 청련암으로 향했습니다. 청련암은 약 해발 300m에 높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곰소만의 푸른 바다의 절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청련암 암자로 계시는 현각스님께서 청련암의 역사에 대한 설명과 산속 암자 수행 생활을 재미있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청련암을 참배하고 내려오며 관음전과 내소사를 자유 탐방하

고 곰소만에 있는 첫갈 시장에 들른 후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암자로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든 상황에서 연로하신 참가자를 위해 자신의 손을 선뜻 내어주는 나눔의 모습과 암자에서 수행하시는 청정한 스님들의 맑은 기운을 느끼고 배울 수 있어 의미 있는 숲기행이 되었습니다.

7월 13일(6월 초하루) 미니 녹색 나눔 장터 진행 예정



맑고 향기롭게 중앙 사무국에서는 올해 봄부터 작지만 알찬 미니 녹색 나눔 장터를 매월 초하루에 길상사 뜨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물품들은 대부분 중앙 사무국에서 손수 제작하고 있으며 계절에 맞추어 회원과 신도분들이 필요하신 것들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6월 초하루 장터를 방문하시면 늘 인기가 좋은 천연 한방 비누와 장터 때에만 구매할 수 있는 아이크림, 여름철 모기퇴치 스프레이, 가려움증과 근육통에 효과적인 젤파스를



착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천연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에 민감하신 분들이나 연약한 피부를 가진 분들도 믿고 사용하시는 제품입니다. 더불어 맑고 향기롭게 의류 리폼 봉사자분들이 자연을 생각하며 한뼘한뼘 정성스럽게 만든 물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의류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자연을 보호하고 주변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자 청바지와 버리는 천 등으로 에코백, 의류, 앞치마 등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장터에서는 환경에 이로운 천연 섬유인 '마'를 이용한 바지와 조끼를 만들어 판매할 예정입니다. 자연과 사람 모두에게 이로운 물품들로 진행되는 미니 녹색나눔장터를 통해 법정 스님의 맑고 향기로운 정신을 전파하고,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해주세요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본 모임 홈페이지 회원제안 게시판에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나 직접 발간하신 저서, 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등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전화, 편지, 전자 우편으로 알려주세요. 또한 청정한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여러 활동이나 참신한 아이

디어 공유해주실 분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사)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 500여 가정에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반찬 27개를 나누고 3월에서 11월 둘째 목요일에는 배추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로 농협상품권과 명절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 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매일 2,0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은 매주 월요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셔서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을 찾으시면 됩니다.

* 아름다운 만남 - 청소년 자원활동

'아름다운 만남' 자원활동은 노인 자살예방 캠페인 아름다운 마무리의 연장선상으로, 본 모임에서 밀반찬이나 전화 말벗 등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집을 청소년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정서적 지지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관심 있는 청소년 봉사자를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 의류 리폼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맑고 향기롭게 의류리폼 자원활동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길상사 경내에 개점한 '맑고 향기로운 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세 상 사업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길상사내 세계일화실에서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의류리폼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

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7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3일(화)/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3월~11월 둘째 목요일(12일)/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 (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묻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활동/수시 모집 중/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노인 노인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 마당 정기 자원활동 : 둘째 토요일(14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넷째 토요일(21, 28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 매주 화요일/오후 12시/세계일화실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 짝수 달 매주 수요일/오후 1시 30분/세계일화실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물품 후원
-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 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 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후원계좌안내 (CMS, 계좌입금)

- '길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활동소식을 비롯하여 법정 스님의 글과 삶의 지혜가 담긴 알차고 유익한 월간 '맑고 향기롭게'을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KEB하나은행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은행 220-890015-10204

❖ 결식이웃 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02.741-4696 / 홈페이지 : www.clean94.or.kr

• 이메일 : clean94@hanmail.net • 주소 : 서울 성북구 선잠로5길 68 길상사내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은 회원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3층공간은 대관으로 공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봉사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앞9시출발/목욕,식사도움,빨래장리,말벗
- 청도 운문사 봉사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9시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 공양 준비 및 공양 재료 다듬기, 청소 등
- 햇살청소년지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

해 청소년 물품 및 문화정서 지원 / 분기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과정과 함께 명상 및 문화여행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조리봉사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맑고향기롭게(소식지)발송 : 매월 초

* 사육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배달봉사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법정스님 책임기모임 '일기일회' 함께해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7시에 회원들이 함께 모여, 법정스님의 저서 읽기 모임인 '일기일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스님의 말씀과 지혜를 책에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구모임 3층 '시민서로배움터' 강좌 안내

- 몸살림 기공체조 강좌 : 태극권, 형의권, 팔괘장 정통계승 및 기공활법 활기공 전수자이며 현재 대체의학 테라피를 진행하고 있는 백무현 선생님을 모시고, 6월부터 매주 월, 수, 목 오후 8시에 기공체조 강좌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맑고 향기로운 일곱 빛깔 아카데미 : 6~12월, 매월 둘째주 금요일 7시 / 월간 기획 강연
- 비정기 문화여행, 체험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등 진행
- 장소 : 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 사무국 (대구 남구 봉덕로9길 84-2 2층) / 문의 053-753-8883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지원활동**: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열린법당 '미하연'
- **회원 만남의 날**: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 / 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운영/오전 9시30분~오후 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매월 둘째 수요일 / 사무국
- **노래모임**: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 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숫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 일시: 매일 오후 2시
- 장소: 극락전
- 동참금: 5만원 /각 회차(100일)
- 설판도 받고 있으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10회차 기도가 7월 29일(일)에 입재되며, 수시로 접수합니다.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속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7월 14일 (토) 오후 8시 00분
- 장소: 극락전

보름기도

- 일시: 7월 27일 (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불교대학

- 9강: 7월 5일(목)
- 10강: 7월 12일(목) (종강일)
- 오후 1시 30분 / 오후 7시 30분
- 장소: 설법전

일요특강 '인권'에 대해서

- 길상사에서는 11월까지 넷째 일요일에 "인권 (여성, 장애인, 아동, 봉사자 등)에 대해서" 라는 주제로 일요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도님들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넷째 일요일(사시예불 마친 후 진행됨)
- 장소: 길상사 설법전

* 7월 주말 템플스테이는 여름 선수련회 관계로 휴회합니다.

지장재일 (첫째주)

- 7월 1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지장전

지장재일 (마지막주)

- 7월 30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지장전

관음재일

- 일시: 7월 7일(토)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7월 13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7월 7일(토) 오후 6~8시
- 장소: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7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지장재일	7월 1일(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7월 7일(토)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 기도	7월 7일(토)	오후 6시~8시	지장전
초하루 기도	7월 13일(금)	저녁 9시 50분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7월 14일(토)	오후 8시30분	극락전
보름기도	7월 27일(금)	오전9시 50분	극락전
백중3재	7월 28일(토)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7월 30일(월)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오전 9시 50분/저녁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저녁 7시	지장전
금강경독송 천일기도	매 일	오후 2시	극락전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설법전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중고등 법회실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 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활동' 함께해요! ◆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고령층 어르신과 장애인 등 500여 가구에
매주 반찬과 김치를 나누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모임이 1999년 IMF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톨이가 된 노인들과 장애인을 찾아
반찬과 김장을 담아 전해 드린 것이 시작이 되어 어느덧 2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맑고 향기롭게와 뜻을 함께 하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다는 책임감으로
참여하는 봉사자가 계시기에 지금도 나눔사업을 지속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면서, 맑고 향기롭게 봉사자도 점점 고령화 되어가
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듯, 할 일이 많고, 도움을 드려야 할 대상자가 많기에, 나눔을 실천
할 봉사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활동 내용
 - 무의탁노인, 결식아동, 극빈 장애인 및 저소득 가구 지원
 - 밑반찬 2가지 조리후 각 동사무소로 전달
 - 반기별 생필품 구입용 농협쿠폰 지원
 - 매월 둘째 목요일에는 김치 전달
 - 설날, 추석, 대보름, 부처님오신날에는 물품후원
 - 연말 김장(각 가구에 15kg) 나눔
- 참여 안내
 - 장소 : 길상사 주차장 입구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시간 : 매주 목, 금요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2시
 - 문의 : 맑고 향기롭게 중앙사무국 02.741.4696

나를 찾아 떠나는 맑고 향기로운 여행



길상사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2018년 여름 선 수련회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나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여름 선 수련회와
여름휴가를 맞아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향기로운 차와 참 나를 만날 수 있는
성인을 위한 여름 선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가까운 도심에서 맑고 향기로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길상사 여름 선 수련회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일정

차수	일정	대상	비용
1차	7월30일(월)~7월31일(화) / 1박2일	초등1~3학년	5만원
2차	7월31일(화)~8월2일(목) / 2박3일	초등4~6학년	7만원
3차	8월2일(목)~8월4일(토) / 2박3일	성인	10만원
4차	8월6일(월)~8월8일(수) / 2박3일	중,고등학생	8만원

- 접수 : 7월 1일부터 ~ 정원(입금자 우선) 마감까지
길상사 홈페이지(수행터-템플스테이-여름 선수련회)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1-136827/길상사
- 문의 : 02-3672-5945 / kilsangsa@hanmail.net

